

조선 정부의 임진왜란 대응 및 역할

박희봉*

논문 요약

이 연구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일본군 참모본부가 1924년 「일본전사 조선역」에 정리해 놓은 임진왜란에 참전한 일본군 병력수의 변동을 살펴봄으로써 임진왜란에 대한 그간의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각종 임진왜란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조선군을 압도한 것으로 기술된 기존의 역사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일본군은 상당한 피해를 입은 끝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조선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의 국민적 인식과는 달리 선조 임금은 임진왜란 전반에 걸쳐 조선관군과 의병을 지휘하고 있었다. 조선 정부는 전쟁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자로서 지속적으로 전쟁 종결을 위해 국가적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노력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군이 전투를 주도한 시기는 임진왜란 초기 2개월에 그쳤고, 2개월이 지난 후부터 임진왜란이 종료될 때까지 조선군이 전투를 주도하였다. 전투 횟수 및 전투 동원병력 면에서도 일본군을 맞아 싸운 당사자는 조선 관군이었으며, 명군과 의병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

주제어: 임진왜란, 조선 정부, 일본전사 조선역

I. 서론

임진왜란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국왕인 선조를 비롯한 조선 정부의 대응과 역할에 대해서도 아픈 기억밖에 없다. 일본의 침입 여부에 대해서까지도 당파 싸움에 휘말려 의사결정을 적시에 하지 못하다가 침입을 당한 후에도 조정과 관군은 지리멸렬한 채, 한달만에 한양성을 적에게 내주고 임금이 의주로 도망갔다는 것이다. 그나마 전라도를 지킨 것도 이순신의 수군과 의병의 역할에 의한 것이고, 전쟁이 끝난 것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없이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사망에 의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우리 사회 지도층을 형성하는 지식인들도 학교 역사 교육을 통해 배운 이러한 역사를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로 인해 역사를 단편적인 현황이나, 결과만을 가지고 설명하는 시험을 치르기 위한 지식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국사편찬위원회가 편찬하고 교육부가 출판한 중학교 국사교과서에서조차 조선 정부의 대응 및 역할을 폄하 및 왜곡하고 있다. 임진왜란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전투상황지도(149쪽)에서 일본군이 승승장구하던 초기 2개월 현황만을 담아 초기 2개월 이후 조선군이 일본군을 격퇴하던 모습을 감추었다. “조선은 육전에서와 달리 해전에서는 왜군에 큰 타격을 가하였다”(147쪽)고 기술하여 육전에서 조선 관군의 역할을 전혀 표현하지 않았다. “명의 원군까지 도착하여 조선은 왜군에 반격을 가하게 되었다. 이 때 김시민은 진주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148쪽)며 1592년 10월에 있었던 김시민의 진주대첩과 1593년 1월에 들어온 명군을 교묘하게 선후를 바꾸어 표현하였다. 더욱이 왜란의 결과에 대한 표현에서 “일본은 조선의 항복도 받지 못했고”(149쪽)라며 국사 교과서 안에 있는 문장에서 일본을 주어로 쓰고 있다. 또한 “전쟁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다”(149쪽)고 하면서 임진왜란에서 일본군이 강제로 민간인을 납치한 사실을 범죄가 아닌 정당한 행위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전쟁이라는 누란(累卵)의 위기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한 대비를 시행하였고, 실제 전쟁수행에 있어 군대를 조직하였으며, 선조와 광해군과의 분조(分朝)를 통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시킨 일본군에게 막대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킴으로써 종국적으로 퇴각하게 만들었다면 역사의 해석이 전혀 달라진다. 이는 과거 역사 속 국가와 정부가 부단한 통치작용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감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학자들(기타지마, 2008; 문인식, 2013; 박희봉 2014; 윤인식, 2013; 양재숙, 2012)은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일방적으로 자기비하에 머물던 임진왜란 역사를 행정학 차원에서 역사적 사실이라는 근거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임진왜란에 대해 재해석하고자 한다.

정부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행정학자의 눈으로 볼 때 임진왜란 때 조선 정부가 무기력하여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고 하면 임진왜란 이후 조선 정부는 이미 멸망했어야 한다. 그러나 1924년 일본군부가 일본 중심의 시각으로 일본의 편의를 위해 출간한 「일본전해 조선역」에 기록해 놓은 임진왜란에 참전한 일본군의 병력수 변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더라도 임진왜란에 대한 그간의 인식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방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후속세대에게 잘못된 역사를 아직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건 속에 나타난 조선 정부의 역할에 관해 객관적 역사적 사실과 계량화할 수 있는 수치들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국가적 정체성 형성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역사 연구의 분야에 행정학자의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자료 분석을 통해 기존의 역사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찾아냄으로써, 새로운 역사적 해석과 더불어 국가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II. 조선정부의 전쟁 준비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2년 전 일본의 요청에 따라 조선 정부는 조선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했다. 이때 통신사가 가져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서신을 통해 조선을 침략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선조에게 조선과 명나라를 침입할 것임을 서신을 통해 알렸다. 조선통신사가 선조에게 전한 서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록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오래 산다 해도 예로부터 백년을 넘지 못하는데 어찌 답답하게 이곳에만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나라가 산과 바다로 막혀 멀리 있음에도 개이지 않고 한번에 뛰어서 곧바로 대명국에 들어가 우리나라의 풍속을 4백여 주에 심어 놓고, 교토의 다스림과 교화를 억만년토록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귀국이 앞장서서 입조한 것은, 앞일을 깊이 헤아린 처사이므로 이제는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 곳의 작은 섬에 있는 무리라도 늦게 복속해 온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대명에 들어가는 날 사졸을 거느리고 군영에 나온다면 더욱 이웃으로서의 맹약이 굳게 될 것입니다. (기타지마, 2008: 8-9)

이 서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나(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태양의 아들이어서 모든 전투는 다 이긴다. 둘째, 나는 명나라를 쳐들어갈 것이다. 셋째, 조선은 일본에게 조선통신

사를 통해 항복할 것임을 알렸으니 공격하지 않겠다. 하지만 명나라 정벌에 조선이 병력과 병량을 준비하고 앞장서라.

조선 조정은 발생할 전쟁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일본의 군사력에 대한 정보는 알지 못하였지만, 전쟁 준비를 하였다. 일단 일본이 명나라를 치기 위해 조선을 공격할 것임을 명나라에게 알렸고,¹⁾ 각 지역 방어를 각자 방어하는 진관체제를 도 단위의 지역에 군대를 모아 대단위 군대로 방어하는 제승방략 체제로 전환했다. 동시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남부 지역 지방관에게 전쟁 준비를 하라고 명을 내렸다. 비변사는 왜적은 수전에 강하나 육지로 올라오면 불리하므로 육지 방어에 힘써야 한다고 간언하였고, 이에 선조는 호남과 영남의 큰 읍성을 증축하고 수리케 하였다. 1592년 2월, 임진왜란 1년 전에는 신립과 이일을 남부지방에 파견하여 각 지역의 전투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전투준비가 미약한 곳의 지방관에 대해서는 참수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변방 사정을 잘 아는 신하들을 선발하여 경상, 전라, 충청 등 하삼도를 순찰케 했다. 김수를 경상감사, 이광을 전라감사, 윤선각을 충청감사로 삼아 병기를 준비하고 성곽을 증축토록 했다.²⁾ 이에 따라 영천, 청도, 삼가, 대구, 성주, 부산, 동래, 진주, 안동, 상주 등의 지역에서 성곽과 참호를 증축 또는 축조하였다(김경록, 2020).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따르면, 이순신 역시 전쟁이 필연적으로 발발할 것으로 전제하고 군사를 훈련하고 거북선을 비롯한 전함을 축조하였으며, 성곽을 보수했다. 진주성에서는 김시민의 지휘하에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대포와 화약을 준비하였고, 성곽을 보수했다. 함안의 유승인은 기마병을 양성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에 따라 조선은 10만 명 이상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조선 조정이 명나라에 알린 조선군 병력은 <표 1>과 같다. 여기에 신립이 충주에 내려간 중앙군 약 8,000명을 합한 14만 8,800명이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보유한 총 병력이다.

1) 선조실록 25권, 24년(1591) 10월 24일(병진) 1번째기사, 「일본이 명을 정벌하기 위해 길을 내달라고 요구한 일로 주청사 한응인 등을 명나라에 보내다」 선조실록, 25권, 24년(1591) 10월 24일(병진) 2번째기사, 「김응남이 중국에 갔을 때 유구의 사신이 와서 일본의 침략 의도를 보고하자 황제가 칙서를 내리다」

2) 이공익, 「연려실기술」, 민족문화추진회 번역. (최종검색일: 2015년 7월 7일) <<http://db.itkc.or.kr>>

〈표 1〉 도별 조선군 지휘관 및 관군수

도	주요 지휘관	병력수
경기도	순찰사 권징, 방어사 고언백, 순찰사 성영, 조방장 홍계남, 평택현 장관,	8,700
충청도	충청도절도사 이옥	2,800
경상도	육군 경상좌도순찰사 한효순, 경상좌도절도사 박진, 경상우도절도사 김시민, 함안군수 유승인	51,000
	수군 경상좌수사 박홍, 경상우수사 원균	24,000
전라도	육군 전라도절도사 최원, 전라도순찰사 권율,	26,200
	수군 전라좌수사 이순신, 전라우수사 이익기	14,800
함경도	함경도절도사 성윤문, 경성부 평사 정문부, 안변부 별장 김우고, 안변부 조장방 김우고	10,200
강원도	강원도순찰사 강신	2,000
평안도	평안도절도사 이일, 평안도좌방어사 정희운, 평안도우방어사 김응서, 평안도조방장 이사명	14,000
황해도	황해도좌방어사 김억추, 황해도우방어사 김경로, 황해도순찰사 이정암	9,100
계		140,800

자료: 선조실록 34권, 26년(1593) 1월 11일(병인) 15번째 기사, 각도에 있는 병마의 숫자

하지만 조선 8도 전지역이 전쟁 준비를 착실히 한 것은 아니다. 지역 백성들은 조정의 전쟁대비 명령에 대해 평화시에 불필요한 전쟁 준비로 인해 민심을 동요시킨다며 상소를 올리는 등 조직적 반발을 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태평성세가 계속되었으므로 군대의 조직과 훈련도 어렵고, 백성들은 성곽축조와 병기 제도 등의 부역을 꺼렸고 원성이 가득하였다.

따라서 전쟁 준비과정에서 조선조 정이 당파적으로 분열되어 전쟁 준비를 소홀히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임진왜란이 시작된 1992년은 당파가 아직 형성되기 전이다. 동인과 서인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국정이 분열되었다기보다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물론 조선통신사로 함께 일본을 방문했던 정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의 의견 차이를 서인과 동인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들기도 한다. 그러나 황윤길과 김성일의 의견 차이는 일본의 침입 여부라기보다 일본의 침입 이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차이이다. 분명한 것은 일부 신하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일본이 침입할 것임을 명나라에게 알렸고, 조선 남부 지역 수령들에게 전쟁 준비를 할 것을 명령했으며, 조정에서는 지역의 전쟁 준비를 점검하였다.

이태진(2014)도 임진왜란을 둘러싼 당파의 대표 인물인 이이, 김성일, 유성룡 등에 대한 이해가 서로 적대적인 것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한때 의견을 달리 한 때도 있었지만 다 같이 국난극복의 구국을 목표로 최선의 방책을 찾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모습의 역사를 후세에 남겼다”고 평가하고 있다.

Ⅲ. 조선 정부의 대응

1592년 4월 13일 부산 영도에 일본군이 도착하면서 임진왜란이 시작됐다. 다음 날인 4월 14일 부산성전투, 4월 15일 동래성전투, 4월 18일 밀양전투, 4월 19일 언양전투, 4월 20일 김해전투, 4월 21일 경주전투가 차례로 있었다. 일본군 1번대를 이끄는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는 부산성전투, 동래성전투, 밀양전투를 벌였고,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2번대는 언양전투와 경주전투를, 구로다 나가마사(黒田長政)의 3번대는 김해전투를 승리했다. 일본군 1번대는 18,700명, 2번대는 22,800명, 3번대는 11,000명이었다. 이를 상대한 조선군은 각각 1,000명을 넘지 않았다. 절대적인 병력 부족, 전투 경험 부족, 무기의 열세로 인해 초기 전투에서 일방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병력과 무기의 일방적인 부족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을 맞아 싸운 조선 수령과 관군의 용기와 애국심이 오히려 놀랍다.

조선 조정은 즉시 제승방략(制勝方略)³⁾을 가동했다. 경상도 지방 수령에게 병력을 이끌고 대구로 집결하라고 명령했고, 충청도 지방 수령에게는 충주로 모일 것을 명령했다. 대구에 모인 병력은 순변사 이일을 파견하여 지휘하도록 하였고, 충주 병력을 지휘할 순변사로 신립을 대기시켰다. 이 외에서 방어하기 유리한 주요 거점에 장수를 파견했다. 우방어사 조경은 추풍령으로 파견하여 구로다 나가마사의 2번대를 상대하게 하고, 좌방어사 성웅은 동로를 지키도록 하여 가토 기요마사의 2번대를 저지하도록 하였다. 조방장 유극량은 죽령으로, 조방장 변기는 조령으로 파견했다.

순변사 이일은 한양에서 병력을 모으느라 대구에 늦게 도착했다. 대구에 모인 경상도 병력은 순변사가 늦으니 뿔뿔이 흩어졌다. 대구에 도착한 이일은 일단 상주로 퇴각하여 800여명의 병력을 모아 기초 훈련을 실시했다. 이 때 고니시 유키나가의 일본군 1번대가 훈련 중인 조선군을 공격하였고, 전투는 일방적으로 끝났다.

상주전투의 소식을 들은 선조는 여진족과 수많은 전투에서 항상 승리한 조선 최고의 명장인

3) 제승방략체제는 진의 수령들이 유사시 군사를 이끌고 전략적 요충지로 모인 후 중앙에서 파견된 지휘관의 명령을 받아 전투를 치르는 중앙 집중 방위체계로서 적은 수의 진단위 군사로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는 것이다. 제승방략에 의한 군사동원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균형잡힌 이해가 필요하다. 김구진·이현숙(1999)은 임진왜란 때에 의병(義兵)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다음과 같이 제승방략체제에 의한 군사동원시스템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즉 “첫째 당시 농민들이 토착 군사로서 《제승방략》체제에서 〈군무(軍務)〉를 익숙히 알고 있었던 점이고, 둘째 《제승방략》의 수비책에 의하여 험준한 산악과 강을 지형(地形) 지물(地物)로서 철저히 이용하였던 점이고, 셋째 비록 대장(大將)과 부장(部將)이 없더라도 의병장(義兵將)이 대신하여 《제승방략》의 〈분군(分軍)〉법에 따라서 지방의 농군들을 군사 편제로 쉽게 조직화할 수 있었던 점이다.”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립을 소환했다. 선조는 한양과 경기도에서 모을 수 있는 모든 병력인 기병 8,000명을 신립에게 맡겼다. 선조 임금은 신립에게 조선의 운명을 맡긴 것이다.

신립이 조선 중앙군 기마병 8,000명을 이끌고 충주에 도착하자 제승방략에 의거 충청도에서 모인 1만 2,000명의 보병이 합류했다. 많은 부하 장수들은 산악인 새재에 진을 치고 일본군과 결전을 벌일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신립의 생각은 달랐다. 신립은 보병보다 기병의 장점을 선택했다. 신립은 남한강변인 탄금대 평원에 진을 치고 기병 위주의 진을 쳤다. 조선의 최정에 기병으로 적을 압도하려고 하였다.

운명의 충주 탄금대전투는 4월 28일 벌어졌다. 조선 병력은 기병 8,000, 보병 12,000으로 총 병력 2만명이고, 일본군은 고니시 유키나가의 1번대 18,700명이다. 단순한 기병과 보병의 전투라면 조선군에게 승산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군은 조총 위주의 보병이 기병을 압도할 전략을 이미 익히고 있었다. 일본은 이미 조총병으로 무장한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가 당시 최대의 기병을 보유하고 있는 다케다 가쓰요리(武田勝頼)를 일방적으로 물리친 전략을 경험하였다.

자신과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분석한 후 전투에 나선 일본군은 전투 초기부터 조선군을 압도하였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목책을 준비하여 기병의 활동성을 제한하였다. 조선 기병은 일본군 진영을 돌파하지 못하고 일본군 조총에 희생당했다. 조선 기병의 공격 실패 후 일본군은 조선군을 포위하여 압박하였다. 전투 결과는 일방적이었다. 다만 이 전투를 목격한 포르투갈인 프로이스(2008)는 조선군의 용맹성을 전하고 있다.⁴⁾ 또한 「일본전사 조선역」에서 추정할 때 고니시 유키나가의 일본군 1번대도 탄금대전투에서 많은 사망자를 냈다. 1만 8,000명의 병력 중에서 약 1만 명이 탄금대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탄금대에서의 패전으로 조선은 한양성을 방어할 병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1번대와 2번대, 3번대의 5만 여명의 병력이 동쪽과 서쪽, 남쪽의 3개 방향에서 한양성을 압박했다. 선조는 북쪽으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다. 선조가 한양성에서 방어를 지휘하다가 일본군의 포로라도 된다면 조선의 운명은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이다.

선조는 호위무사도 없이 북으로 몽진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내렸다. 첫째, 자신과 차남 광해군은 평안도로 가서 후일을 준비하고, 장남 임해군과 3남 순화군을 함경도로 보내 지역의 민심을 추스르라고 지시했다. 가족 모두의 안위보다 조선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는 평양성이 함락된 후 광해군과 조정을 분조한 것과 동일한 의도였다. 선조가 사망하거나 포로가 되는 경우 광해군이 왕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조선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4) 프로이스(2008)는 포로가 된 나이 어린 조선군 기병이 일본군에게 자신의 목을 베어달라고 요청하여 전사하는 등 조선군은 충성심이 대단했다고 기록하였다.

둘째, 전란이 국왕인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조선 8도 백성들에게 격문을 돌리면서 백성들에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거병할 것을 호소했다. 동시에 전국 각 지역에 초유사를 파견하여 의병을 모집하고, 관군을 독려했다.

셋째, 선조는 각 지역의 전투상황을 총괄 지휘했다. 전투에서 승리한 관군은 관직을 높여주었고, 의병의 경우에는 관직을 제수하여 정식 군대로 편입하였다. 대표적으로 육군과 해군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권율과 이순신, 김시민의 관직을 높여주었고, 김천일, 최경회, 황진 등 의병을 이끌고 전투를 이끈 의병대장에게 관직을 수여하였다. 이로써 관군과 의병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임진왜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관직에서 은퇴하여 지역에서 쉬고 있던 지역유지들은 가족과 노비를 모아 거병하여 인근 유력인사를 독려하여 병력을 확대하고, 자신의 재산으로 병량과 병기를 마련하였다. 일본군은 조선 관군과의 전투에서 전체 조선 백성을 상대로 싸워야 했다. 일본군은 전·후방의 구분이 없어졌다. 어디에서도 공격을 받았고, 점령지에서도 병량을 제공받을 수 없게 되었다.

IV. 전투의 주도: 조선군인가? 일본군인가?

여기에서는 임진왜란을 누가 전투를 주도했는지를 주요 전투를 통해 분석하였다. 전투의 상황별로 4기의 시기를 나누어 살펴보겠다.

〈표 2〉는 일본군이 각종 전투에서 승승장구하던 1592년 4월 13일부터 1593년 6월 14일까지 2개월, 부산성전투에서 1차 평양성전투까지를 제1기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시기 동안 19차례의 전투가 있었다. 19회의 전투 중 일본군은 초기 8차례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뿐이다. 물론 부산성전투부터 탄금대전투, 임진강전투, 평양성전투 등 주요 전투에서 일본군이 승리하였다. 반면, 조선은 해전에서 일방적으로 승리했고, 소규모 육지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 전체적인 전투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해전보다 육지전투이기 때문에 제1기는 일본군이 주도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 임진왜란 제1기 전투결과 (1592. 4. - 1592. 6)

전투명 (장소)	전투 일자	승리 주역	조선군 병력	일본군 병력
부산성전투	4. 14	일본군	800	18,700
동래성전투	4. 15	일본군	1,000	18,700
밀양성전투	4. 18	일본군	500	18,700
상주전투	4. 25	일본군	800	18,700
탄금대전투	4. 28	일본군	20,000	18,700
옥포해전	5. 7	조선군	3,700	4,000
합포해전	5. 7	조선수군	3,700	840
적진포해전	5. 8	조선수군	3,700	2,100
해유령전투	5. 16	조선군	500	70
임진강전투	5. 18	일본군	13,000	22,000
정암진전투	5. 24	조선 의병	200	2,000
사천해전	5. 29	조선수군	3,970	1,300
당포해전	6. 2	조선수군	3,970	2,640
진해해전	6. 5	조선수군	7,470	880
당항포해전	6. 5	조선수군	7,470	2,720
울포해전	6. 7	조선수군	7,470	900
용인전투	6. 5 - 6	일본군	80,000	1,600
무계전투	6. 6	조선의병	50	30
1차 평양성전투	6. 14	일본군	4,600	23,700

자료: 박희봉 (2014), 양재숙 (2012), 윤인식 (2013)에서 재편집.

〈표 3〉은 1592년 6월부터 10월까지의 4개월 간 19차례의 전투를 제2기로 분류한 것이다. 제2기 전투는 제1기 전투와 달리 일본군이 조선군을 공격한 전투보다 조선군이 일본군을 공격하는 양상을 보인다. 총 19회의 전투 중에서 일본군이 조선군을 공격한 것은 4회인 반면, 조선군 또는 조선의병이 일본군을 공격한 것은 15회에 이른다. 전투 결과 역시 일본군이 승리한 전투는 4회이고, 조선군 승리 또는 승리를 판단할 수 없는 전투가 15회로 다수를 차지한다. 전반적으로 일본군은 점령한 지역을 지키려고 하고, 조선군이 일본군에게 공세를 하는 등 조선군이 전투의 주도권을 회복했다.

〈표 3〉 임진왜란 제2기 전투결과 (1592. 6. - 1592. 10)

전투명 (장소)	전투 일자	승리 주역	조선군 병력	일본군 병력
웅치전투	7. 8	일본군	2,000	3,000
이치전투	7. 8	무승부	3,000	3,000
1차 금산성전투	7. 10	일본군	7,000	13,000
의령전투	7월	조선의병	4,000	2,000
우적현전투	7월	조선군	4,000	3,000
한산대첩	7. 8	조선수군	8,260	10,100
안골포해전	7.10	조선수군	8,260	5,940
2차 평양성전투	7. 17	일본군	6,000	18,700
영천성전투	7.24-27	조선의병	3,500	3,000
3차 평양성전투	8. 1	일본군	20,000	18,700
정주성전투	8. 1	조선의병	1,000	1,000
2차 금산성전투	8. 18	일본군	700	10,000
1차 성주성전투	8. 21	무승부	20,000	20,000
영일산성전투	8. 23	일본군	1,000	3,000
연안성전투	9.	조선군	미상	3,000
2차 경주성전투	8월	조선군	미상	미상
북관대첩	9.16-10.	조선의병	3,000	2,000
2차 성주성전투	9. 11	무승부	20,000	20,000
창원전투	9월	조선군	1,000	1,000

자료: 박희봉 (2014), 양재숙 (2012), 윤인식 (2013)에서 재편집

〈표 4〉는 1592년 10월부터 1593년 6월까지의 3개월간 6차례의 주요 전투를 제3기로 분류한 것이다. 일단 이 시기 동안 해전이 없다. 그 이유는 조선 수군과 해전을 피하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일본 수군이 조선 수군을 회피한 결과이다. 육상 전투에 있어서도 4박 5일 동안의 1차 진주성전투에서 일본군의 공세를 분쇄한 이후 조선군이 일본군을 일방적으로 물리쳤다. 이 시기 6차례의 전투에서 조선군 및 의병이 5차례 승리했고, 일본군은 벽제관전투 1회 승리했다. 벽제관전투는 일본군과 명군과의 전투였을 뿐이다.

〈표 4〉 임진왜란 제3기 전투결과 (1592. 10. - 1593. 6.)

전투명 (장소)	전투 일자	승리 주역	조선군(명군) 병력	일본군 병력
진주대첩	10.5-10	조선군	3,800	30,000
길주성전투	10. 25	조선의병	3,000	1,000
독성산성전투	12. 11	조선군	10,000	20,000
4차 평양성전투	1. 6-9	조명연합군	43,000	18,700
벽제관전투	1. 27	일본군	2,000	15,000
행주대첩	2. 12	조선군	2,300	20,000

자료: 박희봉 (2014), 양재숙 (2012), 윤인식 (2013)에서 재편집

임진왜란 3기에 일본군은 조선 남부지역을 석권하고 전라도로 진출하기 위해 전략적 요충 지역은 진주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했다. 조선 관군 및 의병은 진주성전투의 승리 이후 낙동강 서쪽으로 공세를 강화하여 부산성에서 한양성에 이르는 일본군 보급로를 차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에 일본군은 대규모 전투에서 일본군이 패퇴함으로써 일본군은 한양성에서 경상도 남부 해안지역으로 후퇴하였다.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수뇌부는 사상자의 증가에 따른 전투력 상실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전쟁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움을 알렸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점령한 후 명나라를 공격하겠다는 초기 계획을 축소하여 한강 이남을 점령하겠다고 목표를 변경했다. 일본군은 벽제관전투의 패배로 전투의지를 상실한 명군과 휴전회담을 함으로써 명군을 충청도 지역에 묶어 놓고 남부지역의 전략적 요충 지역인 진주성을 함락시킨다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표 5〉는 1593년 6월부터 1596년 5월 일본군이 철수할 때까지 근 3년 동안에 있었던 3차례의 주요 전투를 제4기로 분류한 것이다. 3차례의 전투 결과만으로는 일본군이 승리한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이 끝내 진주성을 함락하고 처음으로 전라도 구례와 남원까지 진출하여 전투를 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일본군이 철저한 조선군의 반격으로 조선을 점령할 수 없음을 확인한 순간이다. 2차 진주성전투는 1593년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8박 9일 동안 25차례의 전투가 있었다. 전투에 참여한 일본군은 약 9만 3,000명, 조선군은 5,800명에 불과했다. 조선군 5,800명 중에서 진주관군은 3,000명이고, 2,800명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의 지역 수령들과 의병장이 지방군과 의병을 이끌고 진주성을 지키고자 참여한 병력이다. 조선군이 25회의 전투 중 24회는 승리했고, 마지막 25번째 공격에서 폭우로 무너진 성곽을 통해 밀려드는 일본군은 막지 못해 결국 전원이 전사했다. 이 전투로 인해 일본군도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었고, 전투력과 전투의지를 상실했다. 일본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전라도로 진출하기는 했지만 결국 부산으로 후퇴하였다. 실질적으로 2차 진주성전투는 일본군이 조선을 점령할 수 없음을 확인한 전투였고, 일본군은 결국 부산 해안에 장기간 농성하다가 본국으로 물러났다.

〈표 5〉 임진왜란 제3기 전투결과 (1593. 6. - 1596. 5.)

전투명 (장소)	전투 일자	승리 주역	조선군 병력	일본군 병력
2차 진주성전투	6.15-29	일본군	5,800	92,972
구례전투	7. 2	일본군	미상	미상
남원성전투	7. 7	무승부	3,000	3,000

자료: 박희봉 (2014), 양재숙 (2012), 윤인식 (2013)에서 재편집

임진왜란을 이와 같이 4기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일본군이 우세했던 시기는 임진왜란 제1기인 초기 3개월뿐이다. 제2기는 조선군이 일본군에 반격했던 시기이며, 제3기는 조선군이 일본군을 후퇴시킨 시기였으며, 제4기는 조선군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일본군을 본국으로 철수시킨 시기이다. 결국 임진왜란 초기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쟁목표는 실현되지 못하였고, 전쟁이 지속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목표 수행에 한계를 깨닫고 변경한 새로운 전쟁목표인 한강 이남 점령 또한 전혀 이룰 수 없었다.

V. 승리의 주역: 명군인가? 의병인가? 조선 관군인가?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위시한 대부분의 역사책에 임진왜란을 극복한 이유로 명군의 참전, 그리고 의병과 수군의 노력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렇다면 조선군은 이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각종 전투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치른 주인공은 누구인가를 살펴본다.

〈표 6〉은 1592년 4월부터 1593년 6월까지 임진왜란 중에 조선 관군과 일본군 간의 전투 및 동원 병력을 정리한 것이다. 31회의 조선 관군과 일본군의 전투 중 조선군은 18회 승리했고, 일본군은 13회 승리했다.

〈표 6〉 조선관군과 일본군 간의 전투 및 동원 병력

전투명 (장소)	전투 일자	조선군 병력	일본군 병력	승리 주역
부산성전투	4. 14	800	18,700	일본군
동래성전투	4. 15	1,000	18,700	
밀양성전투	4. 18	500	18,700	
상주전투	4. 25	800	18,700	
탄금대전투	4. 28	20,000	18,700	
임진강전투	5. 18	13,000	22,000	
용인전투	6. 5 - 6	80,000	1,600	
1차 평양성전투	6. 14	4,600	23,700	
웅치전투	7. 8	2,000	3,000	
2차 평양성전투	7. 17	6,000	18,700	
3차 평양성전투	8. 1	20,000	18,700	
영원산성전투	8. 23	1,000	3,000	
구례전투	93. 7. 2	미상	미상	
소계		149,700	184,200	
해유령전투	5. 16	500	70	조선군

이치전투	7. 8	3,000	3,000	
연안성전투	9.	미상	3,000	
2차 경주성전투	8월	미상	미상	
창원전투	9월	1,000	1,000	
진주대첩	10.5-10	3,800	30,000	
독성산성전투	12. 11	10,000	20,000	
행주대첩	2. 12	2,300	20,000	
소계		20,600	77,000	
옥포해전	5. 7	3,700	4,000	조선수군
합포해전	5. 7	3,700	840	
적진포해전	5. 8	3,700	2,100	
사천해전	5. 29	3,970	1,300	
당포해전	6. 2	3,970	2,640	
진해해전	6. 5	7,470	880	
당항포해전	6. 5	7,470	2,720	
울포해전	6. 7	7,470	900	
한산대첩	7. 8	8,260	10,100	
안골포해전	7.10	8,260	5,940	
소계		57,970	31,420	
우척현전투	7월	4,000	3,000	
2차 진주성전투	6.15-29	5,800	92,972	
소계		9,800	95,972	
총 동원 인원		238,070	388,572	

자료: 박희봉 (2014), 양재숙 (2012), 윤인식 (2013)에서 재편집

병력 동원 측면에서 있어서 일본군이 승리한 13회의 전투에서는 조선군은 총 14만 9,700명을 동원한 반면, 일본군은 18만 4,200명을 동원하였다. 일본군이 승리한 대부분의 전투에서 일본군은 병력을 집중하여 전투를 치렀음을 알 수 있다. 탄금대전투에서 일본군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일본군은 상대방이 기마전으로 승부를 겨룰 때 어떤 작전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고 전략을 구사했으며, 병사 개개인도 전투 경험이 많았기 때문이고, 상대적으로 조선군은 일본군의 강점을 몰랐기 때문이다. 용인전투에서 조선군이 8만명을 동원하고서도 일본군 1,600명에게 패전한 것은 지휘관과 병사의 작전 능력 및 전투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준다.

이에 반해 진주대첩과 행주대첩 등 성곽을 바탕으로 조선군의 강점이 발휘된 반면, 일본군의 강점이 발휘되기 어려운 곳에서는 조선군이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 조선 수군 역시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극대화함으로써 해전에서 연승을 거둔 것이다. 조선 수군은 무기를 갖추고 병사

훈련과 전술을 연마하는 등 임진왜란에 대비하였고, 일본 수군이 보유하고 있지 못한 화포를 선박에 장착하고 속도가 느리지만 강한 선박의 강점과 지형지물을 이용한 전략을 세운 것이 승리의 바탕이 된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군·의병 연합군이 일본군과 벌인 전투 결과는 조선군·의병 연합군이 1차례, 일본군이 1차례 승리했다. 동원 병력으로는 조선군·의병 연합이 9,800명, 일본군은 95,000명을 넘는다. 일본군이 압도적으로 많은 병력을 동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결과가 사뭇 다르다. 2차 진주성전투에서 35차례의 전투 중 24차례의 전투를 조선군이 승리한 반면, 일본군이 마지막 1회의 승리를 거두었을 뿐이다. 또한 사상자를 비교하면 내용상 조선군이 승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7〉은 조선 의병이 일본군과 벌인 전투와 동원 병력이다. 조선 의병은 8회 승리한 반면, 일본군은 3차례 승리했다. 동원 병력에 있어서는 조선 의병 4만 2,450명, 일본군은 5만 4,030명을 동원했다. 조선 의병이 승리한 전투에서는 조선 의병의 동원병력이 일본군에 비해 다소 많은 반면, 일본군이 승리한 전투에서는 일본군의 병력수가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7〉 조선 의병과 일본군 간의 전투 및 동원 병력

승리자	전투명 (장소)	전투 일자	조선군 병력	일본군 병력	승리 주역
조선 의병	정암진전투	5. 24	200	2,000	조선의병
	무계전투	6. 6	50	30	
	의령전투	7월	4,000	2,000	
	영천성전투	7.24-27	3,500	3,000	
	청주성전투	8. 1	1,000	1,000	
	2차 성주성전투	9. 11	20,000	20,000	
	북관대첩	9.16-10.	3,000	2,000	
	길주성전투	10. 25	3,000	1,000	
	소계		34,750	31,030	
동원 인원 계			34,750	31,030	
일본군	1차 금산성전투	7. 10	7,000	13,000	일본군
	2차 금산성전투	8. 18	700	10,000	
	1차 성주성전투	8. 21	20,000	20,000	
	소계		27,700	43,000	
총 동원 인원			62,450	74,030	

자료: 박희봉 (2014), 양재숙 (2012), 윤인식 (2013)에서 재편집

조선의병이 패전한 1차 및 2차 금산성전투와 1차 성주성전투는 전투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했다기보다는 우국충절에 의거하여 무모한 공격을 한 결과이다. 1차 금산성전투는 고경명이 전라도에서 의병을 모아 한양성으로 향하던 중 금산성에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을 공격한 전투이다. 2차 금산성전투 역시 청주성을 수복한 조헌과 영규의 의병이 700명의 소수 병력을 이끌고 10배가 넘는 일본군을 공격하여 모두 목숨을 바친 전투이다. 1차 성주성전투도 조선의병이 승리하기 위한 전투였다기보다는 조선인의 우국충절을 보여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본군을 공격했던 전투였다. 조선 의병의 세 차례 전투 패배는 병력의 열세로 전투에서 패배할 것을 알면서도 일본군의 침략에 항거한 애국심의 발로에서 나온 것으로 패배의 의미가 없는 전투였다.

〈표 8〉은 명군이 일본군과 벌인 전투와 동원 병력이다. 명군이 참전했다고는 하지만 명군과 일본군과의 전투는 3회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전투를 치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제4차 평양성 전투와 벽제관전투 2회에 불과하다. 특히 명군이 주도한 제4차 평양성전투는 조선군도 함께 참전하였다. 특히 이여송이 명군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일본군의 퇴로를 열어주었고, 퇴각하는 일본군을 뒤쫓으려는 조선군의 앞을 막는 등 명군의 활약이 크지 않았다. 벽제관전투는 명군이 퇴각하는 일본군을 무리하게 공격하다가 오히려 포위되어 많은 희생자를 냈다. 이후 명군은 일본군과 전투를 하지 않은 채 휴전협상에 몰두하는 등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

〈표 8〉 명군과 일본군 간의 전투 및 동원 병력

전투명 (장소)	전투 일자	명군 병력	일본군 병력	승리 주역
4차 평양성전투	1. 6-9	43,000	18,700	명군
벽제관전투	1. 27	2,000	15,000	일본군
남원성전투	7. 7	3,000	3,000	무승부
총 동원 인원		48,000	36,700	

자료: 박희봉 (2014), 양재숙 (2012), 윤인식 (2013)에서 재편집

〈표 9〉는 일본군과 전투를 치른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정리한 것이다. 총 47회의 전투 중에서 조선군은 31회, 조선군·의병 연합 2회, 의병 11회, 명군 2회이다. 동원 병력에 있어서도 조선 관군이 가장 많이 동원됐다. 명군은 전투횟수도 가장 적었고, 동원 병력도 가장 적다. 명군의 참전으로 인해 임진왜란이 극복됐다고 보기 어렵다. 임진왜란을 극복한 주인공은 명군이 아니라 조선군이고, 조선군 중에서도 의병보다는 관군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표 9〉 일본군과의 전투 주역

전투 주역	전투 횟수	조선측 병력	일본군 병력
조선군	31회	228,270	292,620
조선군·의병	2회	9,800	95,972
조선의병	11회	62,450	74,030
명군	3회	48,000	36,700
계	47회	348,520	499,322

그렇다면 조선군이 임진왜란에서 일본군과 각종 전투에서 접전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조선 관군이 일본군을 맞아 전투를 벌이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침략군을 맞이하여 의병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전투를 벌이는 것은 오히려 예외적이기 때문에 의병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이 주변국의 침입에 원군을 보낸 것도 매우 예외적이기 때문에 강조된 것도 이해된다.

하지만 임진왜란을 기술함에 있어서 관군의 역할이 배제된 채 수군과 의병, 명군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 첫째, 조선 관군이 패전의 주역으로 기술되고, 국란극복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조선이 독립국인가를 의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통치력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 즉 임진왜란 시 조선이 독립국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은 스스로 국가를 유지할 수 없고, 국민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유약한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관군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한 것이다. 따라서 임진왜란이 명군과 의병에 의해 극복되었다는 역사기술은 역사 서술자의 교묘하고 의도적인 왜곡이다.

둘째, 조선 수군의 연승에 의해 국란을 극복했다는 역사기술 역시 매우 큰 문제를 낳는다. 물론 조선 수군은 해전에서 연전연승하면서 일본군의 해상 진출로와 보급로를 차단했고, 해전에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줌으로써 일본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킨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수군의 역할 만으로는 육군의 진출을 막을 수 없다. 조선 수군의 역할에 의해 전라도를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 같은 주장은 조선군의 역할 전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 일본군이 전라도를 점령하기 위해 여러 차례 진출을 시도했고, 번번이 조선 육군에 의해 좌절된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즉 권율이 지휘한 웅치전투와 이치전투, 고경명 의병의 1차 금산성전투, 관재우의 정암진전투, 진주대첩 등의 육지전투에서의 승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임진왜란에서 이들 전투에서 단 한번이라도 승리하지 못했다면 전라도 역시 일본군의 점령지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셋째, 실질적으로 조선 의병은 관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의 군체제는 국민개병제로 모든 조선 백성이 평시에는 민간인 신분이고, 전시에는 군인이 되는 체제였다. 즉 백성들이 관군에 의해 징집되면 관군이 되는 것이고, 의병 대장의 휘하에서 전투를 벌였다면 의병군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의병 대장 대부분이 전직관료로 정부지휘체제 하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였고, 의병 대장의 지휘를 받은 하위 지휘관은 현직 수령과 무관들로 구성되었다. 더욱이 전공을 세운 의병 대장에게는 조정에서 직위를 부여하였고, 의병군은 정식 군대로 편입했다. 따라서 조선군을 관군과 의병군으로 분리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조선군이 주도하고 조선 백성이 협력함으로써 임진왜란을 극복한 것으로 역사가 기술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전투를 조선군이 치렀고, 이 과정에서 조선 백성 모두가 자발적으로 협력한 것이다. 조선 수군 역시 그에 합당한 역할을 하였고, 명군은 상징적인 참여에 그친 것이다.

Ⅶ. 일본군 사망자를 통해서 본 임진왜란의 양상

임진왜란 중 참전 일본군수와 사망자수를 살펴볼 때 일본군은 임진왜란 전쟁 과정에서 얼마만큼 큰 손실을 보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참전 일본군수와 이들 중 전사자수는 「일본전사 조선역」에 자세한 통계 수치가 나타나 있다. 「일본전사 조선역」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침략을 위해 동원한 일본군 병력수가 부대체계와 지휘관 별로 제시되어 있다. 임진왜란 도중에 이 지휘관들이 조선의 어느 도시에 주둔했는지가 상세히 보고되어 있다. 특히 임진왜란 시작 시점과 2차 진주성 전투 개시 시점의 부대체계와 지휘관, 병력수가 제시되어 있다.

〈표 10〉은 1592년 4월에서 1593년 6월까지 일본군 병력수의 감소상태를 부대별로 정리한 것이다.⁵⁾ 1592년 4월 정월은 일본군 1번대부터 9번대까지 1차로 조선에 파병된 158,700명의 부대별로 정리한 것이고, 1593년 6월 병력수는 제2차 진주성전투 개시 전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의 부대별 총수이다. 여기에서 정월에서 잔여 병력을 제외한 병력수를 사망자수로 분류했다. 「일본전사 조선역」에서는 사망자수로 표시하지 않고 감소수로 명명한다. 감소 인원은 사망 인원뿐만 아니라 후송 인원과 항복한 인원도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여건상 후송 인원은 많을 수가 없고, 항복한 일본군도 소수일 것임에 따라 간단하게 사망자로 분류했다. 물론 후송 인

5) 병력손실현황은 일본의 참모본부가 1924년(大正14년)에 임진왜란에 관한 기록을 정리하여 발간한 日本戰史 朝鮮役의 기록에 따른 것이다. 일본군은 1593년 3월 20일 한양(책 원문에는 京城으로 표기) 병력수를 사열한 결과 많은 수의 병력이 전사, 병사 혹은 후송됨으로써 다수의 병력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전쟁기간 중 장터푸스(腸塞扶助), 말라리아, 이질, 종기 등으로 인해 많은 병력이 손실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參謀本部編, 1924, 『日本戰史 朝鮮役』, 附記, 村田書店, pp.92~95.)

원과 항복 인원은 사망자보다도 부대의 전투력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감안했다.

〈표 10〉 일본군 1차 침략 9개 부대의 사망자 및 사망률
(1592년 4월부터 1593년 6월 초까지 1년 2개월 간)

부대명 (파견 지역)	부대 정원	잔여 병력	사망자수 (사망률)
1번대 (평안도)	18,700	7,415	11,285 (60.34)
2번대 (함경도)	22,800	14,432	8,368 (36.70)
3번대 (황해도)	11,000	5,082	5,918 (53.80)
4번대 (강원도)	14,000	6,110	7,890 (56.35)
5번대 (충청도)	25,000	15,694	9,406 (37.47)
6번대 (전라도)	15,700	8,744	6,956 (44.30)
7번대* (경상도)	30,000	16,600	13,400 (44.66)
8번대 (경기도)	10,000	7,785	2,215 (22.15)
9번대 (한양성 일대)	11,500	6,314	5,186 (45.09)
합계	158,700	87,432	71,368 (44.94)

주: 1) 일본군 병력수 중 ① 정원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작전명령서 상의 인원이고, ② 일본군 잔여 병력수는 조선내 잔여 병력을 모아 1593년 6월 2차 진주성공격을 위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린 작전명령서상의 편제 병력수에 의거하여 작성했다.

2) 7번대의 파견 병력수는 毛利輝元の 30,000명이다. 잔여 병력 수는 毛利輝元の 3,000명에 毛利秀元の 13,600명의 병력을 더한 것이다.

자료: 參謀本部編, 1924, 『日本戰史 朝鮮役』, 附記, 村田書店.

특히 고니시 유키나가의 1번대 사망자는 11,285명으로 사망률이 60.34%이 달한다.⁶⁾ 기존의 기록으로는 고니시 유키나가의 1번대는 부산성전투, 동래성전투, 밀양전투, 상주전투, 탄금대전투, 제1차에서 제3차 평양성전투까지 조선군을 상대로 모두 완승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제4차 평양성전투에서 명군에게 패했을 뿐이다. 그러나 제4차 평양성전투에서 사망한 일본군은 1,500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고니시 유키나가의 일본군 1번대는 1만 명 이상이 제4차 평양성전투 이전에 사망했다는 것이다. 즉 기존의 기록에는 고니시 유키나가의 1번대의 승전 위주로 적시되어 있고, 패전 또는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한편, 임진왜란 때 전투한 기록이 별로 없는 충청도, 강원도, 황해도 지역에서도 해당 지역에 주둔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일본군 병력의 37.5%, 56.4%, 53.8%가 감소했다. 한편, 가토 기요마사의 2번대는 함경도에서 36.7%가 사망했다. 기록에 남아 있지는 않지만 강원도와 황해도에서 충

6) 「임진왜란 조선역」에 따르면 1593년 3월 23일 한양성에서의 1번대 인원원점검에서는 정원 18,700명, 현재인원 6,626명, 감소자수 12,074명, 감소율 64.56%로 제시되어 있다. 1개월 후 제2차 진주성전투 개시 전에 1번대 인원이 약 1,000명 증원된 것은 일부 부대가 재편된 것으로 판단된다.

청도와 함경도보다도 더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표 11〉은 「일본전사 조선역」을 바탕으로 1592년 4월 임진왜란 시작부터 1593년 6월 제2차 진주성전투 개시 전까지 1년 2개월 동안 사망한 일본군 총수를 추정한 것이다. 1번대에서 9번대 까지의 상세 기록은 〈표 14〉에 제시하였고, 그 외의 일본군 부대는 제2차 진주성전투를 위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작전명령서와 구글에서 확인된 임진왜란 참전 일본군 장수로 추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제2차 진주성전투 때까지 임진왜란에 참전한 것이 확실한 일본군 총수는 224,774명이고, 1년 2개월 동안 일본군 사망자는 10만명을 넘는다.

〈표 11〉 일본군 1차 침략 부대 이외의 부대 사망자 및 사망률
(1592년 4월 - 1593년 6월, 1년 2개월 간)

부대 및 지휘관	참전 병력	잔여 병력	사망자 (사망률)
7번대를 제외한 경상도 주둔 부대	24,044	13,466	10,578 (43.99%)
수군	8,480	4,890	3,590 (42.33%)
10, 11, 12, 13, 14, 16, 변외2번대 중 일부 부대	33,450	18,400	15,050 (44.99%)
합계	65,974	36,756	29,218 (44.29%)

* 일본군 잔여병력으로 추정한 참전병력

** 일본군 참전병력으로 추정한 잔여병력. 참전병력과 잔여병력은 1번대-9번대 일본군의 평균 사망률 45%를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자료: 參謀本部編, 1924, 『日本戰史 朝鮮役』, 村田書店, pp.65~73 및 pp.257~262.

더욱이 제2차 진주성전투를 감안하면 일본군의 사망자는 더 증가한다. 총 25차례의 전투에서 한 번의 전투에서 1,5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도 3만 8천 명에 이른다. 제2차 진주성전투 이전에 10만명이 확실히 사망했고, 제2차 진주성전투에서 3만 8,000명이 사망 추정치를 합하면 13만 8,000명이다. 그렇다면 임진왜란이 끝난 후 일본 땅으로 돌아간 일본군은 9만 명을 넘지 않는다. 참전 일본군의 60% 이상이 사망한 것이다. 임진왜란으로 일본의 인적 피해가 엄청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임진왜란 중 일본군 사망자의 추정치는 2차 진주성전투가 끝난 지 3년 6개월 후에 제2차 발생한 정유재란에서 동원된 일본군 총수와 비교하면 쉽게 이해된다. 즉 1593년 6월 조선군과 일본군 간의 전투가 사실상 종결된 후 살아남은 일본군 병력수는 8만 6,688명, 나고야에 대기하고 있던 예비대 병력수는 6만 2,066명으로 이를 합하면 14만 8,754명이다. 1597년 1월 정유재란에서 동원된 일본군 병력수는 141,490명이다.

정유재란이 3년 6개월 동안의 휴전상태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에 성인이 된 일본인을 더 동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화의조건에

대해 불같이 흥분하여 전군을 최대한 동원한 병력수가 임진왜란에서 살아남은 병력과 예비 병력을 합한 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은 임진왜란 과정에서 실제 사망한 일본군수가 더 많았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일본군의 사망자수는 임진왜란 과정에서 조선군과 조선백성이 얼마나 치열하게 침략군에 대항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일본 입장에서도 무모한 임진왜란을 일으켜 이웃 나라를 침략함으로써 국력을 소진하고 민생을 피폐하게 되었다.

Ⅷ. 결론

한국인은 20세기 초 일본의 식민지 역사를 경험하면서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통해 피해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관련한 역사적 사건 중 한국과 일본이 공식적으로 첫 대면을 한 임진왜란을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역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상대적 열등감을 지니고 있었다. 즉 무능한 임금, 분열된 정부(조정), 존재감 없는 관군으로 조선이 임진왜란에서 일본에게 전 국토와 국민을 유린당했다고 기억한다. 조선 정부의 부재로 인한 백성의 고통으로 상징된다. 이것은 일제의 통치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의 첫 단초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각종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금을 비롯한 조선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백성을 희생시켰다는 기존의 역사 인식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1924년 일본군 합동참모본부가 그들의 입장에서 임진왜란을 정리한 『일본전사 조선역』 만을 살펴보더라도 전혀 다른 역사적 사실이 나타난다.

조선 정부가 위약(危弱)하기만 하였다면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없다. 특히 전쟁을 최정점에서 지휘한 선조를 비겁한 군주로만 묘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반대하는 신하가 있었지만 선조가 주장하여 일본이 조선과 명나라를 침략할 것임을 명에 알렸고, 성의 축성과 무기의 준비, 군대의 양성과 훈련을 점검하였다. 일본군이 복상하자 선조 임금은 자신을 경호할 최소한의 군대도 남기지 않고 모든 중앙군을 신립에게 맡기어 침략군을 퇴치하려 했다. 백성을 버리고 한양성을 떠난 것이 아니라 군대가 없는 한양성에 머물러서는 전체 전투를 지휘할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북으로 몽진한 것이다. 국가를 보전하기 위해 광해군과 분조하였고, 초유사를 조선 8도에 보내어 일본군에 대해 항전할 것을 전하였으며, 전투에서 승리한 지휘관에게 관직을 올려주는 등 전반적인 전투를 지휘하였다.

이 글은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의 전개 양상과 조선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각종 임진왜란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조선군을 압도한 것으로 기술된 기존의 역사와 다른 결과를 발견하였다. 일본군은 상당한 피해를 입은 끝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조선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의 국민적 인식과는 달리 특히 조선 정부는 전쟁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자로서 지속적으로 전승(戰勝)을 위한 국가적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노력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군이 전투를 주도한 시기는 임진왜란 초기 2개월에 그쳤고, 2개월이 지난 후에는 일본군이 본국으로 물러나 임진왜란이 종료될 때까지 조선군이 전투를 주도하였다. 전투 횟수 및 전투 동원병력 면에서도 일본군을 맞아 싸운 당사자는 조선 관군이었으며, 명군과 의병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 선조 임금은 임진왜란 전반에 걸쳐 조선관군과 의병을 지휘하고 있었다.

물론 본 글도 한계가 있다. 일본군 감소수로 되어 있는 것을 일본군 사망자로 해석하였다. 일본군 중에서 전투력을 상실하여 본국으로 후송된 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일본군 중에서 조선군에 항복한 일본군이 몇 명인지 확인되어 있지 않다. 일본군 사망자 중에서도 전투 중에 사망한 인원과 병사한 인원이 확인되어 있지 않다. 임진왜란에 참전한 일본군 중 일부 부대는 1년 2개월 후의 인원이 기록에 빠졌기에 추정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 임진왜란을 재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다. 조선 정부가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어떻게 대응하여 극복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다. 임진왜란 때 조선 정부가 무능했다고 인식하는 것은 조선 정부가 통치하는 것보다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 조선 백성에 유익했다는 식민사관이 부정된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사관은 명백하게 일방적인 역사해석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해 임진왜란이 재평가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성문(2010). 진주대첩을 통해서 본 김시민의 전략과 전술, 조원래 편, 『임진왜란과 진주성전투』, 국립진주박물관.
- 국사편찬위원회 (2002). 『중학교 국사』. 교육과학기술부.
- 기타지마 만지(北島万次)(1997). 壬辰倭亂과 晋州城 戰鬪, 「南冥學研究」, 제7집,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37-69쪽.
- 기타지마 만지(北島万次)(2008). 김유성·이민웅 옮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경인문화사.
- 김강식(2010). 충렬록에 나타난 癸巳晋州戰 전사자의 추승과정과 의미, 조원래 편, 「임진왜란과 진주성전투」, 국립진주박물관, 328~329쪽.
- 김경록(2020). 임진전쟁 시기 영천성 수복전투의 전개과정과 군사사적 특징. 「군사」 114 : 159-197.
- 김구진·이현숙(1999). 「국역 제승방략」,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김명준(2010). 임진년 진주대첩과 학봉 김성일, 『경남문화 세미나 발표문』,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소. 267-320쪽.
- 김성일(1649). 진주성(晉州城)을 지켜 승첩(勝捷)한 것을 치계(馳啓)하는 서장, 「학봉집」, 제3권 狀.
- 김준형(1995). 진주 주변에서의 왜적방어와 의병활동: 제1차 진주성 전투 이전, 「경남문화연구」, 제17권,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89~134쪽.
- 루이스 프로이스(2010). 정성화·양윤선 옮김. 「임진난의 기록: 루이스 프로이스가 본 임진왜란」. 살림출판사.
- 문인식 (2013). 「역사추적 임진왜란」. (주)북랩.
- 박희봉·장경석(2013). 임진왜란 시 1·2차 진주성전투의 국가통합적 의미. 「중양사론」 37집: 43-96.
- 박희봉·장경석(2014). 역사바로세우기 정책의 필요성: 임진왜란에 대한 역사교과서의 오류와 진실을 바탕으로. 「입법과정」 6(1): 101-132.
- 박희봉(2014). 『교과서가 말한지 않은 임진왜란 이야기』, 서울: 논형.
- 선조실록 25권, 24년(1591) 10월 24일(병진) 1번째기사, 「본이 명을 정벌하기 위해 길을 내달라고 요구한 일로 주청사 한응인 등을 명나라에 보내다
- 선조실록, 25권, 24년(1591) 10월 24일(병진) 2번째기사, 김응남이 중국에 갔을 때 유구의 사신이 와서 일본의 침략 의도를 보고하자 황제가 칙서를 내리다
- 선조실록 23권, 22년(1589) 8월 1일(병자) 2번째기사, 석강에 《강목》을 강하고 북변과 왜적의 대비에 대해 의논하다

- 선조실록 34권, 26년(1593), 1월 11일(병인) 15번째기사, 각도에 있는 병마의 숫자
- 양재숙(2012). 『임진왜란은 조선이 이긴 전쟁이었다: 임진왜란의 상식을 되짚다』, 도서출판 가람기획.
- 유성룡(2012). 김홍식 옮김. 『징비록』. 서해문집.
- 이금익. (1966). 「연려실기술」. (민족문화추진회 번역). (최종검색일: 2015년 7월 7일) <<http://db.itkc.or.kr>>
- 이태진. (2014). 임진왜란 발발기의 관군과 의병: 당파적 인식의 청산을 위하여, 『남명학연구』, 제41집.
- 최재천·주일우. (2007). [지식의 통섭: 학문의 경계를 넘다]., 이음.
- 최영희(1997). 임진왜란에 대한 몇 가지 의견, 『남명학연구』 제7집, 1~14쪽.
- 參謀本部編(1924). 「日本戰史 朝鮮役」. 東京: 村田書店.

박희봉(朴熙峯): 미국 Temple University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Citizen Participation, Satisfaction, and Government Responsiveness in the Process of Local Autonomy of Korea, 1994), 현재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부조직, 행정문화 및 사회자본 등이 주요 관심분야이며, 저서로는 「사회자본」(2009), 「좋은 정부, 나쁜 정부」(2013), 「교과서가 말하지 않은 임진왜란 이야기」(2014), 「5800 진주성 결사대 이야기」(2019), 논문으로는 “사회자본이 개인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2019),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2019), “경기북도 설립 효과”(2018) 등을 발표하였다. 주요경력으로 현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을 맡고 있다(hbpark@cau.ac.kr).

<논문접수일: 2020년 11월 30일 /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21일>

www.kci.go.kr

The Response and Role of the Chosun Government during the Imjin War

Hee-Bong Park

This study examines what the Korean government during the Imjin War did. By examining the fluctuations in the number of Japanese troops who fought in the Imjin War, recorded by Japanese historians in the 1924 『Japanese War History in Chosun』, we looked at how wrong the perceptions of the Imjin War were so far.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Japanese military had to withdraw after suffering considerable damage, and the role of the Joseon government was very important in the process, unlike those discussed in the existing mainstream history academia.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contrary to the existing public perception, the Chosun government made efforts to mobilize and allocate national resources to win the battle as the final decision maker for the war. As a result of the response from the Chosun governm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Japanese army was unable to lead the battle except for the first two months of the war, and that they were unable to respond to the pressure of the Chosun army. The period when the Japanese forces led the battle ended in the first two months of the Imjin War, and two months later the Korean army led the battle until the Imjin War was over, and the Japanese forces retreated to their home country. In terms of the number of battles and the combat mobilization force, it was the Chosun Army who fought against the Japanese army, and King Sunjo leads all the government forces and militia throughout the Imjin War.

Key words: Imjin War, Chosun Government, Japanese War History in Chosun